KOSDAQ SMALL-CAP RESEARCH

광진실업 026910 · 철강·부동산

악재 우위

원래 철강 가공·판매를 하던 회사인데, 적자와 상장폐지 위기를 겪으며 주인이 여러 번 바뀌고 부동산·바이오 신사업을 내세우는, 재무가 매우 불안정한 회사.

2026년 11월 11일 종가 기준 · 선정 사유: 코스닥 미보도 후보 954개 중 거래대금 7위(47.6억). 당일 -29.88% 하한가 수준 급락, 최근 9개월간 유상증자·전환사채·최대주주 변경·주식담보 공시가 수십 건 쏟아진 전형적 경영권 분쟁·무자본 M&A 의심 종목.

시가총액	주가	전일대비	거래대금	PER	PBR	부채비율	당좌비율
142억	1,795원	-29.88%	48억	적자	0.65배	360.89%	21.06%

쉬운 요약

이 회사는 지금 '투자 대상'이라기보다 '위험 경고 대상'에 가깝습니다. 원래 철강을 가공·판매하던 회사인데 수년간 적자가 쌓이며 상장폐지 위기까지 몰렸고, 2026년 들어 주인이 여러 번 바뀌고 부동산·바이오 신사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재무가 매우 나쁩니다. 부채비율 360.89%(빚이 자본의 3.6배), 당좌비율 21.06%(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단기 빚의 5분의 1)입니다. 2026년 2분기에 영업이익 2억으로 간신히 흑자를 냈지만 순손실은 이어졌고, 한 분기짜리 신호일 뿐입니다.

무엇보다 **최근 9개월간 유상증자·전환사채·최대주주 변경·주식담보 공시가 수십 건 쏟아졌고**, 여러 매체가 '무자본 M&A', '주가조작 전력 인물 연루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주가는 7월 상한가 뒤 급락해 당일 -29.88%까지 밀렸습니다.

투자 포인트

1. 2026년 2분기 영업이익 2억으로 2년여 만에 분기 흑자 전환 — 매출도 169억으로 직전 대비 반등(단 분기 흑자는 1회뿐)
2. PBR 0.65배·주당순자산(BPS) 2,742원으로 자산 대비로는 저평가 영역, 유보율 448%로 과거 축적 자본은 남아 있음
3. 6월 중견기업부 재편입으로 즉각적 관리종목 지정 우려는 일단 해소됐다는 보도(페로타임즈 2026.06.25)

핵심 리스크

1. 부채비율 360.89%·당좌비율 21.06% — 빚이 자본의 3.6배이고 당장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 단기부채의 5분의 1 수준인 심각한 유동성 위기
2. 당일 -29.88% 급락, 3개월 -60.9%, 52주 최고 6,800원 대비 -73.6% — 2026년 7월 상한가 이후 전형적 테마 붕괴 궤적
3. 최근 9개월간 유상증자·전환사채 결정 공시가 20건 이상 반복되고 최대주주가 수차례 바뀜 — '무자본 M&A'·주가조작 전력 인물 연루 의혹이 복수 매체로 보도됨

투자 권유가 아닌 참고용 자료 · © 오픈팩트

주가·거래량 분석 최근 1년

주가(원)와 거래량 — 최근 1년 일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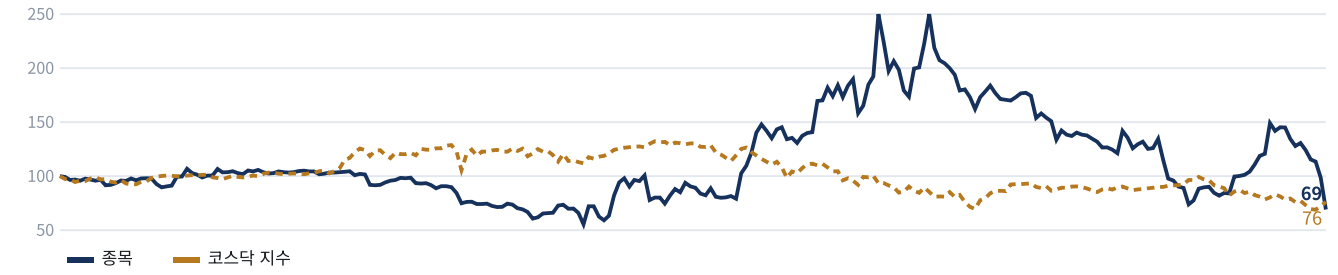


기간	당시 주가	주가 등락	코스닥 지수	지수 대비
1주 전	3,400원	-47.2%	-1.4%	-45.8%
1개월 전	2,200원	-18.4%	-17.0%	-1.4%
3개월 전	4,595원	-60.9%	-	-
1년 전	2,540원	-29.3%	-20.3%	-9.1%

구간	거래량	거래대금	1년 평균 대비
당일	2,550,323주	47.6억	14.9x
5일 평균	595,681주	11.6억	3.5x
20일 평균	255,658주	6.5억	1.5x
60일 평균	217,037주	6.0억	1.3x
1년 평균	170,903주	5.4억	1.0x

코스닥 지수 대비 = 종목 등락률 − 지수 등락률. 거래대금은 종가×거래량 근사. 출처: 네이버 증권 일봉, 20261111 기준.

종목 vs 코스닥 지수 (1년 전 = 100)



애널리스트 해석 — 이 가격·거래량이 말하는 것

① **1년 그림은 '테마 급등 → 붕괴'입니다.** 1년 전 2,540원에서 현재 1,795원으로 -29.3%지만, 그 사이 52주 최고 6,800원(7/3)을 찍고 내려온 길입니다. 고점 대비 -73.6%, 7월 2일 상한가 보도가 그 정점의 출발이었고 이후 넉

달간 거의 일방적으로 무너졌습니다. 3개월 -60.9%, 1개월 -18.4%, 1주 -47.2%로 하락 속도가 오히려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② **당일 거래는 공포성 투매입니다.** 기준일 거래량 255만 주는 20일 평균(25.6만)의 10배, 거래대금 47.6억은 20일 평균(6.5억)의 7배가 넘습니다. 주가가 -29.88%로 하한가 수준까지 밀리는 날에 거래량이 10배로 터졌다는 것은, 매수 유입이 아니라 보유자들이 서로 먼저 팔려는 투매에 가깝습니다. 최근 20일 중 ±5% 이상 변동일이 10일 — 사실상 이틀에 한 번꼴로 급등락한 극단적 변동성입니다.

③ **외국인은 애초에 거의 없습니다.** 외국인 소진율이 현재 1.4%, 1개월 전 2%, 1년 전 1.09%로 내내 1~2% 수준입니다. 기관·외국인이 들여다보지 않는, 개인 자금과 특정 계좌가 주도하는 종목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10월에 '소수계좌 거래집중', '특정계좌 매매관여 과다'로 여러 차례 투자주의종목에 지정됐습니다.

④ **시장보다 훨씬 더 빠졌습니다.** 같은 1개월 코스닥 지수 -17.0% 대비 종목 -18.4%로 비슷하지만, 3개월로는 종목이 -60.9%로 훨씬 크게 빠졌습니다. 즉 이 하락은 시장 탓이 아니라 회사 고유의 재료 — 끝없는 증자·CB·최대주주 변경 공시와 투자주의 지정 — 가 만든 것입니다. **결론: 지금 주가는 '싸다'가 아니라 '찾는 사람이 사라지는 중'이며, 거래량 10배 투매는 저점 신호가 아니라 위험 신호로 읽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업 개요 무엇으로 돈을 버는가

광진실업(026910)은 철강 가공·판매를 주력으로 해온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수년간 영업적자가 이어지며 재무가 악화됐고, 2026년 들어 상장폐지 위기 속에 경영권이 수차례 바뀌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철강업 대신 부동산 개발, 자산 재평가, 바이오 신사업 등을 새 성장축으로 내세우는 보도가 잇따랐으나, 이들 신사업이 실제 매출로 확인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사업·제품 구성

사업/제품	설명·비중
철강 가공·판매	기존 주력 사업. 2025년 연매출 569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사업부문별 정확한 비중은 DART 사업보고서 II. 사업의 내용 확인 필요. 2024~2025년 영업적자가 이어진 핵심 영역.
부동산 사업	2026년 6월 '철강 대신 부동산으로 승부수'(딜사이트) 등 보도로 등장한 신사업 방향. 아직 구체적 매출·프로젝트 공시는 확인되지 않음.
바이오·신사업	최대주주 변경과 맞물려 '자산 재평가·바이오 신사업 기대감'(Chosunbiz 2026.07.21) 보도가 있었으나 MOU·협력 수준으로 매출 기여 미확인. 아리바이오그룹은 연계설을 부인(아시아경제 2026.07.06).
매출 비중	DART 사업보고서 'II. 사업의 내용'에서 사업부문별 비중 확인 필요. 현재 공개 데이터상 철강이 매출의 중심이며 부동산·바이오는 계획·기대 단계.

고객과 판매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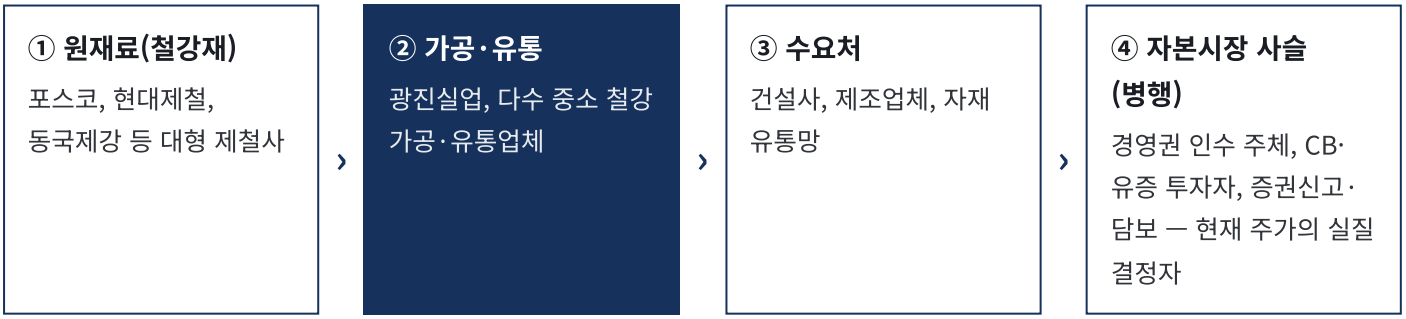
광진실업의 전통적 고객은 철강을 사용하는 건설·제조 수요처로 추정되며, 철강 가공·판매업 특성상 소수 대형 수요처와 유통망에 매출이 연동되는 구조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공개된 데이터에는 구체적 주요 거래처나 매출 상위 고객 정보가 드러나 있지 않아, 정확한 판매 구조는 DART 사업보고서 'II. 사업의 내용'과 '매출 및 수주상황' 항목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이 회사의 자금 흐름이 본업의 고객 매출보다 유상증자·전환사채 같은 외부 자금조달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고객이 누구인가'보다 '자금을 대는 투자자가 누구인가'가 주가를 좌우하는 비정상적 국면이며, 복수 매체가 그 자금줄의 실체(페이퍼컴퍼니 의혹)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쟁 구도

철강 가공·판매 시장에는 다수의 중소 철강 유통·가공업체가 경쟁하며, 포스코·현대제철 등 상공정 대형 제철사의 전방 유통·가공 네트워크가 가격과 물량의 기준을 정합니다. 이런 구조에서 광진실업 같은 중소 가공·판매사는 원재료(철강재) 가격을 그대로 떠안고 판가 전가력이 약해, 마진이 얇고 경기·건설 투자 사이클에 따라 적자와 흑자를 오가기 쉽습니다. 실제로 2023~2025년 연속 영업적자(-70억·-73억·-43억)가 이 구조적 열위를 보여줍니다. 더욱이 경쟁력의 문제 이전에, 반복되는 경영권 분쟁과 자금조달 공시로 사업 자체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 동종 철강 유통사 대비 가장 큰 상대적 약점입니다.

산업 밸류체인 철강 유통·가공 — 그리고 '기업 사냥'이 겹친 사슬

광진실업은 위로는 대형 제철사(원재료 공급)에, 아래로는 건설·제조 수요처에 끼인 중소 철강 가공·판매사입니다. 이 사슬에서 중소 가공사는 가격 결정력이 약한 전형적 '중간 끼임' 위치입니다. 그러나 이 종목의 경우 산업 밸류체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자본시장 사슬' — 적자 상장사가 경영권 거래·증자·CB의 대상이 되는 무자본 M&A 생태계 — 이며, 최근 주가는 철강 업황이 아니라 이 자본 거래 흐름이 정하고 있습니다.



② 가공·유통
광진실업, 다수 중소 철강 가공·유통업체

③ 수요처
건설사, 제조업체, 자재 유통망

④ 자본시장 사슬 (병행)
경영권 인수 주체, CB·유증 투자자, 증권신고·담보 — 현재 주가의 실질 결정자

밸류체인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

1. **본업의 가격 결정력이 약하다.** 철강 가공·판매사는 원재료를 대형 제철사에서 사서 수요처에 넘기는 구조라 마진이 얇다. 2023~2025년 연속 영업적자(-70·-73·-43억)가 그 결과다. 건설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 한 본업만으로 흑자 전환은 어렵다.
2. **지금 주가를 정하는 것은 철강 업황이 아니라 자본 거래다.** 최근 9개월 공시의 대부분이 유상증자·전환사채·최대주주 변경·주식담보다. 사업이 아니라 '껍데기 상장사'를 둘러싼 자금 거래가 가격을 움직인다.

3. **반복되는 증자·CB는 기존 주주 지분을 묽게 만든다.** 한 매체는 '최대 39.91% 잠재 희석 CB'를 지적했다(데일리연합).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바뀌면 기존 주주 몫이 그만큼 줄어든다. 주가 급등 뒤 급락은 이 희석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4.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고 '무자본 M&A' 의혹이 있다.** 복수 매체가 페이퍼컴퍼니·주가조작 전력 인물 연루 의혹을 보도했다(인포스탁데일리·리버티코리아포스트). 이런 종목은 실체 없는 인수 주체가 상장사 자금을 빼가는 위험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5. **부동산·바이오 신사업은 '기대'일 뿐 매출이 없다.** 상폐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테마성 전환일 가능성이 있으며, MOU·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다. 실제 매출 공시가 나오기 전까지는 밸류에이션 근거가 되지 못한다.

어떤 이슈에 얼마나 민감한가

영향 요인	방향	민감도	왜 그런가
경영권 인수 주체·자금줄의 실체	−	매우 높음	무자본 M&A 의혹이 실체화되면 상장폐지·거래정지 위험. 현재 가장 큰 변수
유상증자·전환사채 발행 반복	−	매우 높음	지분 희석과 물량 출회. 최근 9개월 20건 이상 공시로 주가 하방 압력
철강 업황·건설 경기	±	중간	본업 매출의 기반이나 현재 주가 영향력은 자본 이슈에 가려짐
투자주의·투자경고 지정	−	높음	소수계좌·특정계좌 매매관여로 10월 수차례 지정. 추가 조치 시 거래 위축
부동산·바이오 신사업 진행	+	낮음	MOU·기대 단계. 실제 매출 공시 없이는 재평가 근거 안 됨
관리종목·상장폐지 요건	−	매우 높음	과거 상폐 위기 경험. 재무 악화 지속 시 다시 요건 저촉 가능성
단기 테마·수급 자금	±	높음	개인·특정계좌 주도. 유입 시 급등, 이탈 시 급락의 양방향 극단 변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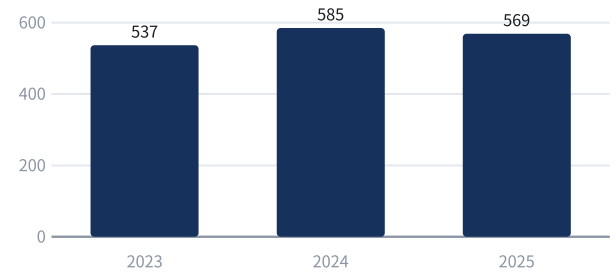
실적 분석 연간·분기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3	537	-70	-51
2024	585	-73	29
2025	569	-43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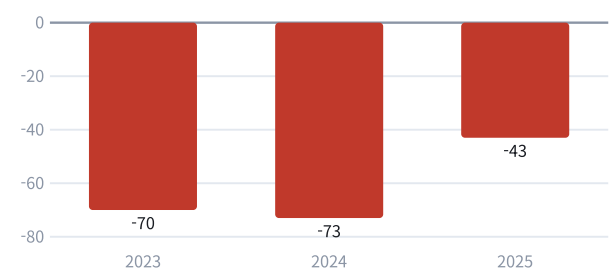
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5.3Q	135	-6	-13
25.4Q	140	-13	-13
26.1Q	145	-3	-10
26.2Q	169	2	-3

단위: 억원 · 출처: DART 사업·반기·분기보고서 기반 공개 재무데이터. (E)는 시장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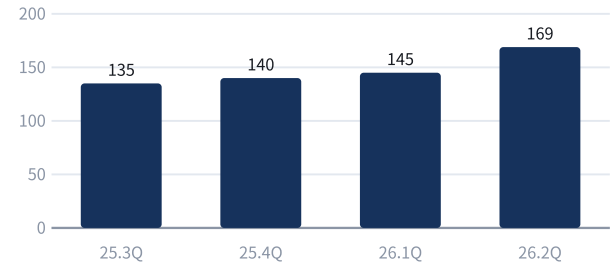
연간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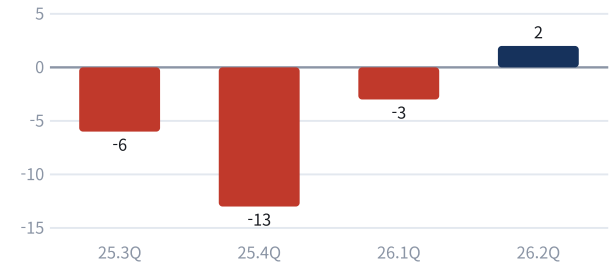
연간 영업이익



분기 매출액



분기 영업이익



애널리스트 해석 — 숫자 뒤의 이야기

매출은 500억대에서 정체돼 있고, 영업이익은 3년 연속 적자입니다. 537억(2023)·585억(2024)·569억(2025)으로 외형은 큰 변동이 없으나, 영업이익은 -70억·-73억·-43억으로 계속 적자입니다. 2024년 당기순이익만 29억 흑자인데, 이는 영업과 무관한 일회성 이익(자산 처분·금융 항목 등)으로 추정되며 영업적자와 방향이 반대입니다. 정확한 내역은 DART 사업보고서 주석 확인이 필요합니다.

분기 흐름에서 유일한 밝은 점은 2026년 2분기입니다. 매출이 169억으로 직전(145억) 대비 늘고 영업이익이 2억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다만 같은 분기 당기순손실은 -3억으로 여전히 적자이며, 영업이익률도 1.00%로 매우 얇습니다. 이것은 추세라기보다 '한 분기의 간신한 손익분기점 터치'에 가깝고, 3분기 숫자가 아직 공개되지 않아 지속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손익이 아니라 재무 건전성입니다. 부채비율은 2026년 3월 401%까지 올랐다가 6월 361%로 — 여전히 자본의 3.6배 수준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당좌비율로, 14.66%(26.1Q)·21.06%(26.2Q)에 불과합니다. 당장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 1년 내 갚아야 할 빚의 5분의 1밖에 안 된다는 뜻으로, 외부 자금조달이 끊기면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유상증자·전환사채가 끝없이 반복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보율은 448%로 과거 축적 자본이 남아 있어 PBR 0.65배라는 '싸 보이는' 수치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BPS(주당순자산)가 25.2Q 3,518원에서 26.2Q 2,742원으로 1년 새 꾸준히 깎이고 있습니다. 적자와 증자로 자본이 희석되며 장부가치가 줄고 있다는 뜻이고, '싸다'는 숫자가 매 분기 더 작아지는 모래성 위에 서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호재 주가에 힘이 되는 요인

확인된 호재와 기대 요인

2026년 2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 (2억, 매출 169억)

장기 적자 끝에 2026년 2분기 영업이익이 2억 흑자로 돌아섰고 매출도 169억으로 직전 분기(145억) 대비 늘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률 1.00%로 매우 얇고 같은 분기 순손실(-3억)은 이어졌으며, 한 분기짜리 신호라 추세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 네이버 증권 분기재무 2026.06 / DART 반기보고서 확인 필요

중견기업부 재편입 — 즉각적 관리종목 우려 일단 해소

2026년 6월 중견기업부에 재편입되며 당장의 관리종목 지정 우려는 해소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상장폐지 위기 국면에서 시간을 번 긍정적 신호로 해석됐습니다. 단 이는 재무 개선이 아니라 소속부 재편에 따른 것으로 근본 체질 변화는 아닙니다.

출처 · 페로타임즈 2026.06.25

부동산·바이오 등 신사업 전환 시도

철강 본업 부진 속에 부동산 개발, 자산 재평가, 바이오 신사업 등 새 성장축을 내세우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딜사이트·Chosunbiz). 성공하면 사업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나 현재는 기대·계획 단계로 매출 기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 딜사이트 2026.06.27 / Chosunbiz 2026.07.21

자산 대비 저평가 영역 — PBR 0.65배

주당순자산(BPS) 2,742원에 주가 1,795원으로 PBR 0.65배, 유보율 448%로 과거 축적 자본이 남아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자산 대비 싼 구간입니다. 다만 BPS가 매 분기 깎이고 있고 부채비율이 360%대라, 이 '저평가'는 안전마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출처 · 네이버 증권 지표 2026.11.11

급락으로 단기 낙폭 과대 영역 진입

당일 -29.88%, 3개월 -60.9%, 52주 최고 6,800원 대비 -73.6%로 깊게 조정됐습니다. 52주 최저(1,442원) 대비로는 아직 +24.5% 위에 있으나, 가격만 보면 단기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낙폭 과대 구간입니다. 반등 여부는 오로지 수급·테마에 달려 있어 투자 근거로 삼기 어렵습니다.

출처 · 네이버 증권 일봉 2026.11

악재 반드시 감안할 위험

확인된 악재와 리스크

당좌비율 21.06%·부채비율 360.89% — 심각한 유동성 위기

빚이 자본의 3.6배이고, 당장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 1년 내 갚을 빚의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2026년 1분기 당좌비율은 14.66%까지 떨어졌습니다. 외부 자금조달이 멈추면 즉시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구조이며, 반복되는 증자·CB가 이를 메우고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 증권 분기재무 2026.06

9개월간 유상증자·전환사채 공시 20건 이상 반복

2026년 7월부터 11월까지 유상증자결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 공시가 기재정정을 포함해 수십 건 쏟아졌습니다. 전환사채(나중에 주식으로 바뀌는 빚)와 증자가 반복되면 기존 주주 지분이 계속 묽어집니다. 한 매체는 '최대 39.91% 잠재 희석 CB'를 지적했습니다.

출처 · DART 2026.07.02~2026.11.10 / 데일리연합 2026.10.30

최대주주 반복 변경 + 주식담보 — 경영권 불안정

2026년 7~10월 최대주주변경,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주식담보제공 공시가 거듭 나왔습니다. 최대주주가 지분을 담보로 잡힌다는 것은 인수 자금이 자기 돈이 아닐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지배권이 계속 흔들리는 '지배권 핑퐁'(인포스탁데일리) 상태입니다.

출처 · DART 2026.07.02~2026.10.27

'무자본 M&A'·주가조작 전력 인물 연루 의혹 보도

복수 매체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인수, 주가조작 전력 인물('이홍헌 라인') 재등장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무자본 M&A는 실체 없는 주체가 상장사 자금을 빼가는 구조로 상장폐지로 이어진 전례가 많습니다. 의혹 단계이나 투자자에게는 가장 큰 위험입니다.

출처 · 인포스탁데일리 2026.07.22·07.28 / 리버티코리아포스트 2026.09.16

10월 수차례 투자주의종목 지정 — 소수계좌 매매관여

2026년 10월 '소수계좌 거래집중', '특정계좌 매매관여 과다', '주가 급등'으로 투자주의종목에 여러 번 지정됐습니다. 특정 계좌가 주가를 움직이는 비정상적 거래가 반복됐다는 뜻이며, 추가로 투자경고·거래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처 · 톱스타뉴스 2026.10.19·10.20·10.26·10.28

3년 연속 영업적자 + BPS 지속 하락

영업이익이 2023년 -70억, 2024년 -73억, 2025년 -43억으로 3년 연속 적자입니다. 주당순자산(BPS)도 25.2Q 3,518원에서 26.2Q 2,742원으로 꾸준히 깎이고 있습니다. 적자와 증자가 자본을 갉아먹으며 '싸다'는 근거 자체가 매 분기 작아지고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 증권 연간·분기재무 2026.11

7월 상한가 뒤 -73.6% 붕괴 — 전형적 테마 소멸 궤적

2026년 7월 2일 상한가(금강일보) 이후 52주 최고 6,800원을 찍고 당일 1,795원까지 -73.6% 무너졌습니다. 당일 거래량은 20일 평균의 10배로 터지며 투매 양상을 보였습니다. 신사업 기대로 급등했다가 실체 확인 없이 붕괴하는 전형적 패턴입니다.

출처 · 네이버 증권 일봉 2026.07~11 / 금강일보 2026.07.02

조달 계획과 실제 현금 여력의 괴리 — '빈손' 의혹

한 매체는 조달 계획과 실제 현금 여력 사이의 괴리를 '320억 실탄 빈손'이라 표현했으며, 다른 매체는 '최대 39.91% 잠재희석 CB와 현금 18.5억'을 지적했습니다. 자금조달 공시가 반복되지만 실제 확보된 현금은 미미하다는 의혹으로, 외부 조달 중단 시 즉각적 유동성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 블로그 2026.11.02 / 데일리연합 2026.10.30

공시 타임라인 최근 9개월 DART

접수일	보고서명	제출인
2026.11.10	[기재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광진실업
2026.11.05	[기재정정]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광진실업
2026.11.02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광진실업
2026.10.30	[기재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광진실업
2026.10.30	증권발행결과(자율공시)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광진실업
2026.10.30	소액공모실적보고서	광진실업
2026.10.29	[기재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광진실업
2026.10.29	[기재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광진실업
2026.10.27	[기재정정]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광진실업
2026.10.27	[기재정정] 최대주주변경을수반하는주식담보제공계약체결	광진실업
2026.10.22	[기재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광진실업
2026.10.20	[기재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광진실업
2026.10.20	[기재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광진실업
2026.10.08	[기재정정] 최대주주변경을수반하는주식담보제공계약체결	광진실업
2026.09.29	[기재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광진실업
2026.09.29	[기재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광진실업
2026.09.17	[기재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광진실업
2026.09.16	[기재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광진실업

출처: DART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서류검색. 정기보고서(사업·반기·분기)는 회색 참고용.

공시 흐름 해석

공시를 시간순으로 읽으면 **'주인을 팔았다 → 끝없이 돈을 찍었다 → 그 돈의 실체가 의심받는다'**로 요약됩니다. 2026년 7월 초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과 함께 유상증자·전환사채 발행이 동시에 결정됐고, 이후 11월까지 거의 매달 유상증자결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 공시가 기재정정을 거듭하며 반복됩니다. 최대주주변경과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제공계약'이 8~10월에 거듭 등장하는데, 새 최대주주가 인수한 지분을 다시

담보로 잡힌다는 것은 인수 자금이 자기 자본이 아닐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조회공시요구(현저한 시황변동, 7/2)와 소액공모실적보고서(6월·10월)까지 더하면, **2026년 하반기 광진실업의 공시 흐름은 본업이 아니라 '껍데기 상장사를 둘러싼 자본 거래' 그 자체입니다.** 한 매체가 '320억 실탄 빈손'(네이버 블로그 2026.11.02)이라 표현했듯, 조달 계획과 실제 현금 여력 사이의 괴리가 핵심 위험입니다.

앞으로의 시나리오 목표주가 없음 · 방향과 조건만

강세 시나리오

3분기 이후 영업흑자가 이어지고 부동산 또는 바이오 신사업에서 실제 매출·계약이 공시로 확인되며, 반복되던 증자·CB가 멈추고 최대주주·자금줄의 실체가 정상적으로 소명된다. 투자주의 지정도 해소. 이 경우 PBR 0.65배의 저평가가 재평가 근거를 가질 수 있다. **조건: 자금줄 소명 + 신사업 매출 공시 + 증자 중단이 모두 필요하며,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다.**

기본 시나리오

본업은 손익분기점 근처에서 적자와 간신한 흑자를 오가고, 유상증자·전환사채가 계속되며 지분이 희석된다. 자금줄 의혹은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채 투자주의 지정과 급등락이 반복된다. 주가는 수급·테마 자금에 따라 극단적으로 출렁이며 1,400~3,000원 넓은 밴드에서 변동성만 커진다. **가장 가능성 높은 경로.**

약세 시나리오

무자본 M&A·주가조작 의혹이 감독당국 조사로 이어지거나, 재무 악화·감사의견 문제로 관리종목·거래정지·상장폐지 요건에 다시 저촉된다. 당좌비율 20% 안팎의 유동성 위기가 외부 조달 중단과 겹치면 현금 고갈. 테마 자금 이탈로 52주 최저(1,442원) 하향 이탈. **재무·공시 구조상 결코 배제할 수 없는 경로.**

앞으로 확인할 것

1. 11월 중 분기보고서(3분기)에서 2분기 영업흑자 지속 여부 — 지속되지 않으면 '흑자 전환'은 1회성
2. 반복되는 유상증자·전환사채의 발행 대상·전환가액·납입 완료 여부 (DART 증권발행결과)
3. 최대주주 변경과 주식담보제공계약의 담보권 실행·반대매매 발생 여부 (DART 수시공시)
4. 투자주의종목 지정이 투자경고·투자위험 또는 거래정지로 확대되는지 (한국거래소 시장조치)
5. 감사의견·관리종목·상장폐지 요건 저촉 여부 (연말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시점)
6. 무자본 M&A·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감독당국 조사·공시 정정 여부 (언론 및 DART)

오픈팩트의 결론

광진실업은 **'저평가 종목'이 아니라 '위험 경고 종목'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PBR 0.65배·2분기 영업흑자 같은 숫자가 눈에 들어오지만, 그 뒤에는 부채비율 360%·당좌비율 21%의 유동성 위기, 9개월간 20건이 넘는 증자·CB, 반복되는 최대주주 변경과 주식담보, 그리고 복수 매체의 '무자본 M&A'·주가조작 전력 인물 연루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철강 업황도 신사업도 아닌 자본 거래와 테마 수급이며, 7월 상한가 뒤 -73.6% 붕괴와 당일 -29.88% 투매가 그 위험을 이미 보여줬습니다.** 호재로 적은 항목들조차 '아직 확인되지 않은 기대'에 머물러 있어, 이 종목은 투자 판단보다 리스크 점검이 먼저인 사례입니다.

시가총액 주가×주식수, 시장이 매긴 회사 몸값 · **PER** 주가가 순이익의 몇 배 · **PBR** 주가가 순자산의 몇 배(1배 미만이면 장부보다 싸게 거래) · **부채비율** 빚÷자기자본(200% 초과 주의, 400% 이상 위험) · **당좌비율** 즉시 현금화 가능 자산÷1년 내 갚을 빚(100% 미만이면 빠듯) · **유상증자** 새 주식을 찍어 돈을 받는 것(기존 주주 지분 희석) · **무상감자** 주식 수를 줄여 손실을 터는 절차(손실을 주주가 부담) · **전환사채(CB)**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빚(전환되면 지분 희석) · **수주잔고** 계약은 했지만 아직 매출로 안 잡힌 물량 · **외국인 소진율** 외국인이 살 수 있는 한도 중 실제 보유 비율 · **거래대금** 주가×거래량, 그날 실제로 오간 돈의 크기 · **밸류체인** 원료→부품→완제품→고객으로 이어지는 산업의 사슬

본 자료는 공개 정보(DART 전자공시, 공개 재무데이터, 언론보도)를 정리한 참고용 자료이며 투자 권유·자문이 아닙니다. 재무 수치는 DART 공시 기반 공개 데이터를 옮긴 것으로 원문 재무제표와 표기 기준이 다를 수 있고, 수주·계약 금액 일부는 언론 보도에 근거해 공시로 확정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시세·지표는 표기된 기준일 종가 기준 이며 이후 변동됩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